

“세계적 ‘사회 불평등’ 문학으로 연대하자”

亞문학페스티벌 폐막...작가 선언문 채택 팬데믹·전쟁·환경 등 위기 타개책 모색 창작된 작품 모티브로 2차 콘텐츠화 ‘속제’

아시아 문학인들이 상처가 아물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전 세계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는 평화에 주목하며 두 손을 맞잡았다. 이들 문학인들은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여성, 청년,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아시아의 거대한 전환을 향해 문학의 수단으로 더욱 연대할 것을 주장했다.

제4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조직위원장 이경자)이 3일간의 행사, 그리고 작가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지난 22일 막을 내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열린 이번 문학페스티벌은 ‘아시아의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서’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사회 대안을 모색한다는 기치로 열렸다. 건강한 지구와 아름다운 자연, 인간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행사들과 비교해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짜임새 있는 구성과 트렌드에 맞는 주제 설정 등은 호평을 받았다. 대주제 아래 ‘마주보기’, ‘새로보기’, ‘함께보기’ 등의 3개의 세션이 조화롭게 구성돼 오늘의 위기 상황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 등을 의미있게 모색했다는 평이다.

먼저 첫번째 세션 ‘잃어버린 얼굴’에서는 베트남 출신의 도안 안 투안의 ‘베트남 디아스포라 속 망명자의 언어들’과 손흥규 소설가의 ‘얼굴은 본래 없었다’의 발제가 이어졌다. 대만의 우밍이 작가 등이 패널로 참여해 오늘의 ‘아시아의 상황’을 밀도 있게 조명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출신의 엘빈 팡의 ‘아시아의 청년’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시도했다. 그의 “우리는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일어난 것 같지 않은 일의 상존, 불일치의 가능성, 우연의 힘, 실패의 가능성을 허용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포용적이지만 방심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포용적이며 열린 시각을 강조했다. 또 “우리는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일어난 것 같지 않은 일의 상존, 불일치의 가능성, 우연의 힘, 실패의 가능성을 허용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포용적이지만 방심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포용적이며 열린 시각을 강조했다.

또한 22일 세 번째 세션으로 다뤄진 ‘거대한 전환’에서는 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아시아문학페스티벌에 참여한 작가들이 발표를 하는 장면. <ACC제공>

안나의 상황 등을 미얀마인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줘 화제가 됐다. 고재중 시인의 사회로 진행된 세션은 유학생 마나이세인이 ‘미얀마 시인의 저항과 그들의 시’를 직접 소개하고 낭송해 적잖은 울림을 선사했다.

그러나 이번 문학페스티벌은 몇 가지 과제로 남겼다. 무엇보다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끝나는 게 페스티벌이 아니라는 일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페스티벌에서 다뤄지거나 창작됐던 작품을 모티브로 2차 콘텐츠화 등 좀 더 확장력 있는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가장 아쉬운 점은 주말을 맞아 행사장을 찾은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문학을 모티브로 즐길 수 있는 체험이나 이벤트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부분 행사가 아카데미향 내용들로 채워진 탓에 전당을 방문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문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몇몇 소수 엘리트 문학인들을 위한 아카데미향’ 행사라는 비판은 결국 문학의 활성화와 공

유·공감·확장이라는 대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값이 고민해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행사 지원금이 초창기에 비해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나름 성공적인 행사였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향후 지속가능한 국제적인 문학페스티벌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학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직 위원회는 마지막 행사로 작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아시아는 보이는 대상을 벗어나 바라보는 시선이 되고자 함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전례가 없었던 질병은 약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장벽이 되었고 연대하려 내미는 손을 가로막았다”며 “우리는 전세계의 표면으로 드러난 전쟁과 기후 위기에 단호히 맞서 싸운다. 또한 우리는 얼굴을 찾고자하는 아시아의 약자, 소수자, 여성의 투쟁을 함께하며 그들과 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출신 강진주 시인 첫 시집 ‘이 도시가 착해 보여요’ 60여편 수록

광주 출신 강진주 시인 첫 시집 ‘이 도시가 착해 보여요’(상상인)를 펴냈다. 모두 60여 편의 시들은 감정을 자제한 ‘객관화되고 일반화된 풍경’을 다룬 작품들이 다수다. 오민석 문학평론가의 표현대로 “서정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서정시와 다른 지점”이 바로 강 시인의 작품 세계를 이루는 지점이다.



그런 관계로 강 시인의 시들은 지나친 과장이나 감정의 과잉이 없다. 자유분방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경계를 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시각과 정조는 더한 슬픔을 자아내게 하는 역설의 힘을 가지고 있다.

시인의 시 가운데는 개인의 아픔이나 상실과는 다른 역사적 상흔을 토대로 시대의 아픔을 노래한 작품도 있다.

“펼치면 다 드러날 것이 두려운지 아무도 말이 없네요/ 컴컴한 우물에도 빛이 들 듯 완벽한 비밀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진저리 친 기억을 손에 꼭 쥐고 나비의 날개가 가벼워지기를 기다려요// 이제 같이, 라는 말은 생경해요/ 환하게 뿜린 너릿재 터널에서 무수한 총알이/ 통학버스 속으로 날아들 때 그야말로 야비규원이었어요...”

위 시 ‘엄마, 나 여기 있어요’는 너릿재 터널을 형상화하고 있다. 80년 5·18 당시 많은 시민군과 민간인들이 공수부대에 의해 희생당한 곳이다. 시의 화자는 그 자리에서 희생된 여학생이다. 화자가 엄마를 향해 거는 말은 사실은 당시에 또는 오늘 살아 있는 이들을 향한 곡진한 말걸기가 아닐 수 없다.

오민석 평론가는 “진저리 친 기억”이 시인의 기억으로 그대로 전이되면서 시인의 뼈 아픈 ‘슬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평한다.

한편 조선의 시인은 추천사에서 “시어는 말랑말랑하지만 단단하고 치밀한 문맥과 은유가 만만치 않다. 빈틈조차도 견고한 윤곽이 있고 선명성이 있어 가독성이 배가 된다”고 말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근현대사 60년의 풍경 ‘그때 우리’

최희정 아카이브전 26일까지 갤러리 혜음 1930~1989년 생활 사진 160여점

친구들과 매스게임 연습을 마친 소녀들(1965), 한껏 차려 입고 막 모습을 드러낸 금남로 분수대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들(1971), 상무대 비행장 비행기 위에 나란히 앉은 개구쟁이 꼬마들(1960년대).

사진 속에 담긴 모습은 아련한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들이다.

1930년대부터 1980년대 광주·전남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전시회가 눈길을 끈다. 최희정 사진작가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수집해온 근현대 생활 사진 160여점을 처음 선보이는 아카이브 전 ‘기억의 장면들, 그때 우리’가 오는 26일까지 광주 혜음갤러리(동구 장동로 1-6)에서 열린다

지난 30년간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온 최 작가는 광주대와 홍익대 대학원에서 사진을 공부했다. 사진작가 뿐 아니라 이미지 수집가, 전시 기획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 작가는 여러 해 동안 지역을 기록하고, 기록된 지역의 이미지와 이야기를 발굴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전시작은 1930년대부터 1989년까지 생활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사진관에서 친한 친구들과 머리를 길게 땀아 내리고 찍은 사진, 사직공원 팔각정 앞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노부부 등의 모습을 만날 수 있으며 최 작가가 촬영한 1980년대 남광주역 풍경도 눈길을 끈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생활 사진이 지닌 예술적인 힘에 관해 말하며 ‘사진 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수집한 근현대사진을 ‘기억 이미지’라고 부르는 그는 ‘사진에 담겨있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우리 삶으로 겹쳐지며 이행하는 순간이 마치 위대한 예술작품을 보았을 때의 경험과도 같다’며 “한 장의 사진 속에는 그들의 역사가 눈 너미에 깔린 것처럼 묻혀 있다”고 말한다.

강흥구 사진작가는 이번 전시작에 대해 “일상적인 사진, 개인적인 사진들의 아카이브가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문의 010-3627-060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965년 전국체전 마스게임 연습을 마치고 촬영한 사진.

‘시대를 훔친 미술’

시립미술관, 26일 이진숙 미술사가 초청

광주시립미술관은 2022 미술관 아카데미 강좌 ‘즐거움 미술관 활용법’ 마지막 강의를 26일 오후 2시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서울예술의 전당 등에서 대중강연을 펼치고 있는 이진숙 미술사가를 초청해 진행한다. 주제는 ‘시대를 훔친 미술:세속화, 개인화, 세계화에 관하여’. 강좌에서는 서양의 명화들을 감상하며 한점의 그림에서 시대의 삶은 어떠했는가, 제도의 변화는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등을 탐구해본다.

이진숙 미술사가는 서울대 독문독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러시아 여행 중 트레차코프 미술관에서 만난 작품들에 큰 감명을 받아 미술의 세계로 입문했고 러시아 국립인문대학 미술사학부에서 카지미르 말레비치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시대를 훔친 미술’, ‘롤리타는 없다 1·2’ 등이 있다. 미술관 홈페이지 예약 가능.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